**<4장 : 문헌 검색과 문헌 검토>**

컴퓨터 SW 15050045 이재우

대부분의 컴퓨터 프로젝트는 모든 작업이 완료되어 제출한 결과물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 프로젝트 평가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초기의 문헌 조사 작업이다.

문헌 조사는 프로젝트의 기반이며, 문헌 검색과 문헌 검토로 구성된다. 문헌 검색은 연구 자료를

찾고 분류하고 관리하며, 소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문헌 검토는 검색을 통해 얻은 자료들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평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문헌 조사는 여러가지 목적을 제공한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를 정당화해준다. 여러

가지 검증된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식을 확대시키고 또 이를 바탕을 프로젝트를

확장시킴으로써 프로젝트의 가치를 증명해준다. 두 번째로, 연구하려는 분야의 과거와 현재

연구를 토론하고 비판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어떠한 맥락 안에서 설정해준다. 따라서 정해진

맥락이나 혹은 더 넓은 범위의 맥락에서 프로젝트가 적합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 세 번째로, 문헌 조사는 프로젝트의 시작점을 제공해준다.

즉, 한 개인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배경이나, 연구의 근거를 다른 사람들은 문헌 조사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문헌 조사는 문헌 검색과 검토의 두 가지 단계로 진행되는데, 이들은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나선형 모델에 따라, 정의-검색-자료평가-검토 과정을 반복한다. 정의를 통해

관심있는 주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연구 자료에 초점을 맞출 출발점을 설정한다. 그리고 문헌

검색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또한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확실한 이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문헌 검토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주기적으로 반복함으로써

프로젝트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다.

문헌 검색은 어떠한 주제에 관련한 공개된 정보를 체계적을 수집하는 것이다. 검색은 임시

방편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검증된

저널이나 책, 기사 등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특정 주제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검색

범위와 시간을 파악하여 설정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수집한 자료들은 어떤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 의해 검증된, 공개된 자료여야 한다. 즉 프로젝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최신의 자료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헌 검색을 통해 얻은 자료들은 이후에 언제든지

참조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놓아야할 필요가 있다.

문헌은 책, 저널, 논문, CD, 회사 보고서, 매뉴얼,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프로젝트에 맞는 자료를 얻기 위해 범위나 수준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적절한 문헌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선정한 문헌을 얻을 수 있는 출처를 파악하는 일도 중요한데, 정보의

출처로는 인터넷, 도서관, OPAC(도서관 검색 단말기), BIDS(과학 저널 데이터베이스), 도서관 간

대출 등이 포함된다. 방법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잘 파악하여 선정해야 한다. 여러

출처를 이용하여 범위만 벗어나지 않게끔 포괄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보를 얻었다면 얻은 문헌과 정보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를

관리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주제 영역에 대한 개념적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이용해

주제를 식별하고 또 주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지 파악할 수 있으며, 얻은 문헌들을 어떠한

기준이나 순서에 따라 정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여러 자료들을 적당한 기준으로 나눠

폴더별로 정리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컴퓨터를 이용해 색인

시스템을 설정하는 방법, 올바른 형식을 참조를 기록하는 방법, 페이지 마다 메모를 하는 방법

등이 될 수 있다.

프로젝트르 진행할 때 프로젝트를 위한 자료든 프로젝트 자체든 항상 이들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에 대한 중요성 강조된다. 대부분 ‘비판적’이라는 말에 부정적인 느낌을 받지만, 비판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잘못이나 실수를 찾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 보통 기사를

비판적을 평가할 때는 5가지 주요 요점인, 개념화, 이론적 프레임워크와 가설, 연구 디자인,

토론과 결과 그리고 요약으로 구분되는 데, 이러한 다섯 가지 기준 안에서 기사들에 대한

암묵적 질문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조사하려 하는 이슈나 주요 문제가 무엇인지, 테스트될

연구에 관한 분명한 질문과 가설이 있는지, 어떤 디자인이나 방법론이 사용되었는지, 기술들의

한계는 무엇인지,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어떤지 등의 질문이 언급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보면, 비판적 평가가 단순히 그것을 이해하고 일부를 재귀시킬 수 있는 것

이상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료를 읽고 이해하는 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며,

그것의 경계 모순, 막다른 관점 등에 대해 알아야 한다. 비판적 평가의 요점을 읽고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판적인 평가가 있어야 해당 자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헌 검토를 해야 한다. 문헌 검토의 목적도 여러 가지 존재한다. 연구 질문과

목표를 개선하기 위해, 명확하게 드러났거나 혹은 간과되었던 가능성들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작업을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식별하기 위해 문헌 검토가 사용된다. 이러한 문헌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문헌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비판적 평가가 필요하다. 물론 해당 자료에 대한 참조없이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단일 챕터별로, 여러 챕터를 묶어서 또는 사안에 따라 문헌 검토가 수행될

수 있다. 문헌 검토는 종종 시간이 지남에 따른 주제 영역의 변화를 부각시키며 해당 분야의

문헌에 대한 연대기적 토론을 통해 관심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식의 접근을 한다. 이러한 식의

접근은 관심 주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집중을 유도하기도 하고 반대로 해당 분야의 현실적

한계를 부각시킴으로써 결론을 내리고 다시 한번 해당 문헌의 관련성과 중요성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즉 이러한 다양한 성격을 통해 암묵적으로 프로젝트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맥락 안에서

프로젝트를 정리해줌으로써 확실한 프로젝트의 기초를 형성해주는 것이다.

결국에 프로젝트의 주요 작업으로 넘어가게 되지만, 수집한 정보를 다듬고 통합하여

프로젝트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문헌 조사는 프로젝트 내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수행된다.